심청전

송나라 말년, 황주 도화동에 심학규라는 맹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처지였으나 마음씨가 착하고 정직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그의 부인 곽씨 또한 어질고 현명한 여인으로,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며 살림을 꾸려나갔다. 부부는 비록 가난하고 몸이 성치 않았으나 서로를 의지하며 남부럽지 않은 금슬을 자랑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한 가지 큰 근심이 있었으니, 나이 마흔이 넘도록 슬하에 자식이 없는 것이었다. 부부는 매일 밤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자식을 점지해 달라고 빌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 마침내 곽씨 부인은 태기를 느끼고 열 달 뒤 옥 같은 딸을 낳았다. 심 봉사는 너무나 기뻐하며 딸의 이름을 '청'이라 지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곽씨 부인은 산후 조리를 잘못하여 병을 얻었고, 어린 핏덩이 심청을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심 봉사는 눈이 보이지 않는 몸으로 갓난아기를 안고 집집마다 다니며 젖동냥을 하여 청이를 키웠다. 마을 아낙네들은 심 봉사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자신의 젖을 물리며 청이를 함께 키워주었다. 청이는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일곱 살이 되었고, 아버지를 모시는 효성이 지극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다. 청이가 열다섯 살이 되었을 때, 그녀의 효심과 미모는 인근 마을까지 소문이 퍼졌다. 심청은 삯바느질과 길쌈을 하여 늙고 눈먼 아버지를 봉양했다. 비록 가난하여 반찬 없는 밥상을 차릴 때가 많았으나, 심청은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고 아버지를 위로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심 봉사는 딸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마중을 나갔다가 개천에 빠지고 말았다. 허우적거리는 심 봉사를 지나가던 몽운사 화주승이 구해주었다. 스님은 심 봉사의 사연을 듣고는 "부처님께 공양미 삼백 석을 바치고 지성으로 기도하면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에 혹한 심 봉사는 앞뒤 가릴 것 없이 덜컥 시주를 약속하고 말았다. 집으로 돌아온 심 봉사는 곰곰이 생각하니 공양미 삼백 석을 구할 길이 막막하여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심청이 아버지의 근심을 알고 까닭을 물으니, 심 봉사는 스님과의 약속을 털어놓으며 자책했다. 심청은 아버지를 위로하며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라고 안심시켰다.

그 무렵, 남경 상인들이 뱃길의 안전을 위해 인당수에 바칠 처녀를 구하고 있었다. 그들은 제물로 바쳐질 처녀의 몸값으로 막대한 재물을 주겠다고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심청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할 공양미 삼백 석을 마련할 기회라 생각하고, 상인들을 찾아가 자신의 몸을 팔기로 결심했다. 상인들은 심청의 지극한 효심에 감동하면서도 안타까워했으나, 심청의 뜻이 워낙 확고하여 쌀 삼백 석과 돈 냥을 심 봉사에게 주기로 약속했다.

심청은 떠나는 날까지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숨겼다. 마지막 날 밤, 심청은 아버지의 옷을 짓고 밥상을 정성껏 차린 뒤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닭이 울고 날이 밝자 상인들이 심청을 데리러 왔다. 심청은 그제야 아버지에게 하직 인사를 올리며 사실을 고했다. "아버지, 저는 인당수 제물로 팔려갑니다. 이 쌀과 돈으로 부디 눈을 뜨시고 만수무강하세요." 심 봉사는 이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 통곡하며 "내 눈을 뜨려고 자식을 죽이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차라리 내가 굶어 죽고 말지, 너를 보낼 수는 없다!" 하며 딸을 붙잡았다. 그러나 이미 약속은 정해진 터라 돌이킬 수 없었다. 심청은 피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손을 놓고 상인들을 따라나섰다. 마을 사람들도 심청의 효심과 기구한 운명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다.

배는 인당수를 향해 나아갔다. 푸른 바다는 끝이 보이지 않았고 파도는 거세게 일렁였다. 마침내 배가 인당수에 이르자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고 배가 뒤집힐 듯 요동쳤다. 상인들은 서둘러 제사를 지내고 심청에게 뱃머리에 설 것을 재촉했다. 심청은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해 기도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디 저희 아버지가 눈을 뜨게 해주시고, 불효한 여식을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를 마친 심청은 치마폭을 뒤집어쓰고 시퍼런 인당수 물결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거센 파도가 잠잠해지고 바다는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한편, 물속 깊은 곳으로 가라앉은 심청은 정신을 잃었으나 용왕의 명을 받은 거북이와 물고기들이 그녀를 등네 태워 용궁으로 안내했다. 눈을 뜬 심청은 화려하고 신비로운 용궁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용왕은 심청의 효심에 감동하여 그녀를 극진히 대접했다. 심청은 용궁에서 꿈같은 나날을 보냈으나, 육지에 홀로 남겨진 아버지를 생각하며 눈물짓곤 했다. 용왕은 심청의 효심을 가상히 여겨 그녀를 다시 인간 세상으로 보내주기로 결정했다. 심청은 커다란 연꽃 속에 들어가 바다 위로 떠올랐다.

남경 상인들이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인당수를 지나다가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연꽃을 발견했다. 그 꽃이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로워 상인들은 꽃을 건져 올려 왕에게 바쳤다. 왕은 연꽃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궁궐 연못에 두었는데, 밤이 되자 연꽃 봉오리가 열리며 그 안에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심청이 걸어 나왔다. 왕과 신하들은 선녀가 내려온 줄 알고 놀라워했다. 왕은 심청의 자태와 품행에 반해 그녀를 왕비로 맞아들였다.

왕비가 된 심청은 겉으로는 부귀영화를 누렸으나 마음 한구석은 늘 편치 않았다. 아버지가 눈을 뜨셨는지, 밥은 굶지 않으시는지 걱정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왕이 왕비의 수심 가득한 얼굴을 보고 이유를 묻자, 심청은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다. 왕은 심청의 효심에 깊이 감동하여 전국의 맹인들을 초청해 큰 잔치를 열도록 명했다. '맹인 잔치'를 열어 아버지를 찾으려는 심청의 지혜였다.

전국 방방곡곡에 방이 붙고, 수많은 맹인이 한양으로 몰려들었다. 심 봉사 역시 뺑덕어미라는 짓궂은 여인의 꾐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갖은 고생을 하며 한양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잔치는 사흘 동안 계속되었으나, 심 봉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심청은 애타는 마음으로 잔치 마지막 날까지 아버지를 기다렸다.